

하나의 세계를 향하여

(1) 과감한 사회 구조 개혁으로 타파

현대의 세계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축소되어져 간다. 기술 문명 중에서도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인공위성의 놀랄만한 성장 때문에, 세계는 이제 한 울타리 안에서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한 가족처럼 되어졌다. 멕시코 올림픽 경기 구경을 안방에서 텔레비전 중계로 구경할 수 있는가 하면, 김포에서 비행기로 도오쿄오에 도착하는 시간과 자동차로 비행장에서 시내에 들어오는 시간과 맞먹는 정도이다. 이처럼 과거의 세계에서 미처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재 없이 번져가고 있지만, 이와 반비례하여서 국가간의 이해와 반목은 더욱 심각해져 간다. 이전에는 까마득하던 먼 나라 사람들이 오늘에는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국민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디트로이트의 흑인 폭동이 유럽 각국의 수도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2) 가장 큰 고민거리

이렇게 축소되어가는 세계 안에서 오늘의 인류가 직면한 큰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종족간의 증오와 반목인 것이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반목, 남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백인과 토착인과의 반목, 더우기 미국 안에서의 흑백 문제는 오늘의 세계 여론을 집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인종 문제를 하나의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앵글로색슨이 미국 대륙을 차지한 뒤를 이어서 1619년에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가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프리머드에 정착하자 1654년에는 유태인 이민이 미국에 들어 왔다. 또 1830년에는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 때문에 아일랜드 이민이 들어 왔고, 1860년에는 독일에서부터 혁명을 피하여 온 피난민, 1890년에 이탈리아계의 이민이 미국에 건너 왔다. 이처럼 160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미국은 백년 동안 줄곧 외국의 이민들이 부푼 가슴을 안고 찾아온 땅이 되어버렸다. 이 외국 종족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겪은 동화 과정은 대개 다음과 같다.

- 1) 호기심 : 낯설은 고장에 처음 들어설 때 느낀 호기심이다.
 - 2) 경쟁 : 이민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
 - 3) 충돌 : 사회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 이민족의 이주 때문에 느끼는 반감에서 생겨지는 충돌이다.
 - 4) 이민들이 대다수의 국민의 행동, 습관을 받아 들이는 일들이다.
 - 5) 적응 : 다수편에 선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잘 적응해 오는 이민들만을 용납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다.
 - 6) 동화 : 이민들이 자기들의 전통적인 유산을 버리고 그 아이덴티티를 포기하여서 소위 미국의 주류에 휩쓸려 들어 가는 것이다.
- 이러한 과정에서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네번째 단계인 문화적인 적응이었다.

(3) 흑인의 경우는 언제나 예외

그러나 이 과정은 결국 사회 경제의 제도로 다소 극복되었으나 다만 흑인의 경우만은 예외로 남아 있게 되었다. 적어도 1830년과 1890년에 미국의 산업 경제 발전 때문에 무식한 아일랜드계 이민과 이탈리아계 이민들은 육체 노동자로서 노동력을 충당했다.

1860년에 독일계 이민은 미국의 북서 지방의 주인 없는 땅을 차지하여 농업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미국 흑인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1865년까지 흑인들이 개간법에 묶여서 남부 지방을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흑인을 제외한 타 이민들이 문화 적응을 한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교회를 통한 문화 적응의 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저들은 재빨리 자기 종족을 정치계에 진출시켰다. 예를 들면 보스턴 같은 도시에서는 아일랜드 이민이 경찰에 대거 취직하여 이 도시의 경찰 세력을 장악했고 이것도 또한 저들의 정치적인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고 케네디 대통령의 선조들도 사실은 이러한 시기에 뉴잉글랜드에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계 이민들의 후손들이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정계에 진출하여 이탈리아계 시장과 경찰 간부를 배출하게 된 일도 있다. 그러나 흑인들은 아직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과거 백년 동안 남부 지역에서는 백인이 정계에 출마할 때면 선거 공약으로써 백인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흑인의 교육에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전통처럼 되어 왔다. 그 결과로 남부에 묶였던 흑인이 교육을 받지 못하

고 북부 공업 지대로 이민을 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오늘의 미국의 심각한 고민은 이러한 차별 대우를 받은 흑인들의 폭력 혁명이다. 이 역사적 심판을 견디어내고 과거부터 누적된 편견을 없이하는 데는 정부의 과감한 시정책과 아울러 교회나 민간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4) 교회·민간 운동 전개돼야

A. J. Muste는 미국의 사회 문제를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분열이 아니라 폐쇄와 굴욕을 겪어보지 못한 종족과 수세기간 늘 모욕을 당한 종족 간의 분열로써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지난 5백년간의 세계 역사에서 늘 굴욕을 겪지 않은 종족이란 백인 밖에 없었다는 W. E. B. Dubois의 말이 타당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천대 받는 사람들에게 취직을 하거나 그 밖에 사업의 길을 열어 주어서, 점차로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로 산업 발달이 오히려 이러한 길을 막고 있다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산업의 자동화가 갑자기 발달하게 되자 비숙련공의 대량 해적으로 매년 2백만의 실직자가 생기게 되며 이것이 흑인들의 가정 생활의 붕괴, 사생아, 심리적인 문제의 악순환을 한층 더 초래하여 미국 사회의 중대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미국 흑인 총 인구는 2천 2백만이지만 1999년까지는 4천만으로 늘 것이라고 하며 그 때에 생겨질 위기는 거의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이제 종족의 문제는 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누적된 편견과 차별에서 오늘에 폭발한 것이다. 이 악순환을 개혁하는 길은 결코 안이하지 않을 것이다. 평등의 이념이나 구호도 좋지만 사회 정의에 입각한 정치 지도자들이 사회 구조의 개혁을 단행할 슬기와 용기가 있어야만 파탄에 빠지는 비극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읍살라에서 모인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도 다수와 소수의 문제(재일 교포나 동남 아시아의 화교, 그리고 유럽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와 함께 종족의 문제가 크리스천 양심에 호소하는 심각한 것으로 다루어졌다. 이 문제는 결국 빈부의 차별 같은 문제와 함께 앞으로 크리스천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련인 동시에 역사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